

‘삼성 비자금’ 대선 정국 뇌관 되나

■ 범여-한나라 특검법안 각각 제출

범여, 반부패연대 구성 선거관 구도 변화 모색 에버랜드 불법 상속 의혹 등 포함 여부 주목



민노당 최순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왼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 직원에게 삼성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및 소위 ‘당선 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삼성비자금 문제가 연말 대선 정국을 흔드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3당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의 명칭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3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 이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법조인·공무원·언론계·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현·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연 차명계좌 의혹 사건 및 관련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특검법안만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크게 2개 항목으로 정리했고, 소속의원 129명 전원 명의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 포함될 대선자금은 2002년 대선 때 대선자금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자금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가 다 포함해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대통합신당 등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이 독자 제출한 한나라 특검법안은 동시에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통합신당 등이 제출한 특검법도 19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이 정치권 등

에 사용된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양측간 절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비자금’ 특검은 우선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노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3자가 이른바 ‘반부패연대’를 실현, 대선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부패 후보’로 몰아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당 등의 생각대로 대선 구도가 흔들리는 미지수다. 우선 특검에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 의혹이 불거질 경우 친노계의 반발을 불러 신당 내부의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비자금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끌면 BBK 주가조작, 자녀 위장직원 등록 의혹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사건이 퇴색할 가능성도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건 나서라”

범여 후보들, 지지율 정체에 ‘역할론’ 당부 지지자들, 촛불집회 갖고 대선 출마 압박

대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여권을 중심으로 고건 전 국무총리의 대안론과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의 대선 출마로 보수세력의 분열이 현실화된 데다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되고 여타 후보들의 지지율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타개할 카드로 ‘고건 대안론 및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 측에서는 최근 고 전 총리에 수차례 역할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맡은 만큼 대선 막판 범여권의 단일대오 형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도 14일 고건 전 총리에 대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분이지만 이심전심하는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가치를 갖고 국민을 향해서 나가려면 국가 원로가 성원을 보낼 것”이라며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범여권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고 전 총리는 “지난 1월 대선 포기 선언과 함께 정치권을 떠난 사람”이라며 “현실 정치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 전 총리가 움직이지 않자 고 전 총리 지지자들로 구성된 ‘고건 대통령 추대 범국민운동본부’는 촛불 집회 등 직접적인 실행사로 대선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고건 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진데 이어 15일에는 광주 금남로 민주총각 앞에서 촛불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말과 내주 초에는 전주와 부산에서 고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고 전 총리가 대선 막판 정치권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단 대선에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는 시간이 없는 데다 고 전 총리의 성격상 대선 막판 범여권 단일대오 형성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범여권 후보들이 대선 막판까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자 고 전 총리의 대안론과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 전 총리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주훈 전 조선대 총장 캠프로

한나라, 선대위 공동위원장 임명

진대제 영입 발표후 취소 해프닝

한나라당은 14일 이명박 대선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주훈(사진) 전 조선대 총장과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를 추가 영입했다고 밝혔다.

체육·청소년 분야를 맡게 될 김주훈 위원장은 장흥 출생으로 최근 조선대 총장 임기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대학스포츠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도 양양 출생으로 참여정부 초반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 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농업정책 수립에 여러 차례 참여해 왔다.

한나라당은 또 해남에서 참다래 농장을 경영하면서 ‘벤처농업계의 이견회’로 불리는 정운현 한국농업CEO연맹 회장을 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최



장수 장관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이명박 후보 캠프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몇 시간

도 안돼 취소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대제 전 장관이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해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민생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다”며 “진 전 장관은 이명박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경제살리기 특위’ 구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전 장관 측은 “우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여 전 장관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어떤 정치권과도 접촉한 일이 없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수성 대선 후보 추대

국민연대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국민연대)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당의 대선후보로 추대됐다. 이날 창당대회에는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안우원 전 대법관 등이 후보 지지자와 당원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지금의 대선판은 무능 세력과 부패 세력이 다투는 이진투구의 장처럼 비치고 있다”며 “국가 운명의 절박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합과 단결, 교육과 문화의 힘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자존심을 높이며 국제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애국심과 도덕성, 전문 능력을 가진 모든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李-昌, ‘지지율’ ‘협박 발언’ 공방

李측 “박근혜 입장표명후 격차 더 벌어져”

昌측, 백일섭씨 “맞기 전에...” 발언 맹비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14일 지지율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명박 후보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자 이회창 후보측이 발끈하고 나선 것.

이명박 후보측 박정준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전 대표 지지선언 다음 날인 13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

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R&R’이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1주일 전인 지난 7일의 41.2%에서 43.7%로 2.5% 포인트 오른 반면, 이회창 후보는 19.7%에서 14.4%로 5.3% 포인트 빠졌다.

이 여론조사 대로라면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박 전 대표 입장표명

이전 21.5%에서 29.3%로 7.8% 포인트 더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측 조응남 부대변인은 “특정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우리는 신중 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 측근은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으며, 3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준 대변인은 “계란 투척 사건은 한나라당과 무관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비록 반대편의 발언이 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사를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응남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회창 후보 테러법과 협박법이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어제 한나라당 공식 행사에서 백씨가 ‘이회창은 뉘지(죽도록) 맞기 전에 받거리를 몰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폭언을 했는데 이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준 대변인은 “계란 투척 사건은 한나라당과 무관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면서 “비록 반대편의 발언이 있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사를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산행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한 산행 안내. 다양한 산행 코스와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1. 산행 코스: ...

2. 주의사항: ...

3. 장비: ...

4. 기타: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무실 ☎ 361-8111 / 복수 ☎ 529-8111

교수진 전현 서울에서 실장! 저자직장! 재능방송-한국경제TV-무형신TV출연 강사진!

개강 12월 3일

국비무료

새종 행정고시학원

사무실 ☎ 361-8111 / 복수 ☎ 529-8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현재 접수중

무료청강

광주고시학원

☎ 227-8003 / ☎ 371-0002